

황석영 『심청』의 근대성과 탈근대성

문 재 원*

차 례

- | | |
|----------------------------|----------------------|
| I. 제의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 III. 분열적 주체와 탈주의 공간 |
| II. 근대적 시선에 포획된 몸과 강제된 동질성 | 1. 분열적 주체와 탈주의 선(線) |
| 1. 강제된 동질화와 배제의 몸 | 2. 보살핌의 공간과 자매애적 연대감 |
| 2. 감시의 시선과 매춘의 양가성 | IV. 마무리 |

I. 제의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심청전』의 심청은 익히 알려진 대로 장님이며 홀아비인 아버지를 둔 가난하고 비천한 여인이다. 아버지가 무턱대고 약속한 공양미 삼백석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몸을 팔아 제물이 되기를 자청하는 부분에 오면 그녀의 고난은 극대화된다. 인당수에 스스로 몸을 던진 이 사건은 오히려 심청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다. 그녀는 비천한 속세의 여인으로서가 아니라 天上仙女의 자격으로 용궁에서 영접을 받는다. 다시 현실에서는 심청이 왕비의 자리에 오르고, 장님이던 아버지를 해후하게 되고, 심봉사 딸을 다시 만난 감격으로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러한

* 경성대학교 강사

줄거리를 가진 『심청전』의 구조는 인과응보, 집단적 무의식에 의한 현실과 환상의 교차로 볼 수 있다. 즉 현실세계와 환상세계 사이에서 심청이 두 세계의 교감적 통로를 연 중간자의 구실을 하게 된 요인은 철저한 자기희생에 의해서이다.¹⁾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죽어야 이름이 남는 심청의 죽음은 조선의孝 이데올로기의 허구적 서사장치이다.

이러한 심청을 작가 황석영은 『심청- 연꽃의 길』²⁾을 통해 다시 불러온다. 여기서 작가가 주목한 것은 죽음의 형식이다. 원전에서 심청의 죽음이 자발적인 선택으로, 하여 거룩한 희생으로 족적을 남기는 것에서 다시 출발한다. 심청이 중국 난징 상인들에게 팔려가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영문도 모른 채 뺨덕어미의 손에 이끌려와 보니 이미 삼백석의 거래는 끝나 있었다. 심청은 조선의 바다와 중국의 바다에서 용왕제를 지내면서 죽음과 환생의 사건을 체험한다. 여기서 원전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심청의 죽음과 환생부분이다. 공양미 삼백석 때문에 팔려와 제물이 되었던 심청은 환생하기는 하되, 천상선녀도 아니고, 왕비의 영광도 아니고, 賣春³⁾의 공간이다. 人身供犧로 현실의 곤고함을 환상 공간에서 보상받을 수 있었던 『심청전』과는 달리, 황석영의 『심청』에서는 현실보다 더 곤고한 賣春의 영역으로 심청을 배치시킨다. 여기에서 심청의 죽음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각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당시 효의 美談이 견어내어져 있다.⁴⁾

-
- 1) 이현홍, 「심청전의 구조와 주제」, 『고전소설강론』, 세종출판사, 1999, 312-313쪽.
 - 2) 『심청 - 연꽃의 길』은 한국일보(2002년 10월- 20003년 10월)에 연재되었다. 본고에서는 이후 출판된 『심청- 연꽃의 길』(문학동네, 2003, 12)을 텍스트로 한다. 이하 텍스트 제목명도 『심청』이라 표기하기로 한다.
 - 3) 성이 상품화되는 회로 속에서 賣春(prostitution)이라는 용어는 性을 사는 사람을 뒤로 숨고, 성을 파는 사람만 전면에 배치시키는 용어다. 그러므로 사고파는 주체를 동시에 드러내는 賣買春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소설 속의 시·공간을 의미화하는 의도에서 모순되고 왜곡된 시선이 내재되어 있는 매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다분히 전략적인 의미가 깃들여 있다.
 - 4)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자들도 지적하고 있지만 (류보선, 「모성의 시간 혹은 모더니티의 거울」, 『심청』 하, 309-313쪽; 김정수, 「근대와 젠더, 그리고 해한 이야기

황석영의 『심청』은 『심청전』의 제의 형식을 다시 읽음으로 새로운 심청을 탄생시킨다. 공동체의 폭력을 내장하고 있는 희생제의는 사회적 약자를 제물화함으로 재통합의 공고성을 천명한다. 통합- 분리- 재통합의 논리 안에서 개인의 목소리는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며, 통합의 질서에 편승된다. 그럼으로 제물에 대해 공동체 구성원들은 공범의식으로 하나가 된다. 황석영은 대체된 희생물 심청의 죽음을 주목하며, 죽음 이후 그녀의 행보를 서사화한다. 죽음의 형식을 규정지었던 충효의 미담을 걷어 내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 보편적이고 집단적인 목소리보다 개인의 목소리가 제의의 현장에 울릴 수 있는 개연성은 높아지고, 이때 제물의 신성성이나 순정성은 사라지고 만다. 제의적 죽음의 형식을 사건 전개의 중요한 서사장치로 차용하되, 형식을 규정지었던 기존의 의미망을 뒤틀어 새로운 의미를 덧씌우고 있는 데서 텍스트 『심청』에 내재한 희생제의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불연속성이 만들어 낸 새로운 심청은 일차적으로 매춘부다. 매춘부가 되어 노인의 侍妾으로, ‘복락루’(도박, 술, 매춘을 겸업하는 오락장) 주인의 애첩이자 예기로, 지롱 사창가의 창녀로, 영국인 사업가의 계약 현지처로, 오키나와 용궁의 마마 상으로 육체와 돈이 끊임없이 거래되는 현장을 전전한다. 효녀와 매춘부의 거리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배면한다. 이것은 다시 도덕/부도덕, 금기/위반, 정신/몸의 영역으로 확장·재생산된다. 그런데 여기서 매춘의 장치가 문제적인 것은 이 위반이 제도의 거울이 된다는 데 있다. 합리적 세계는 노동, 규범,

의 발견], 《작가세계》 60호, 2004, 봄, 114-117쪽; 서영채, 「창녀 심청과 세 개의 진혼제」, 『문학의 윤리』, 문학동네, 2005, 176-179쪽) 그보다도 작가가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부분이 주목된다. 그는 『심청』의 작가 후기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나는 여기서 당시 사회제도를 떠받치고 있던 충효에 대한 미담을 걷어내기로 했다. 그것은 봉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며 묘령의 소녀들을 이국의 해변가에서 거액의 제물로 사간 장사치들이 어떻게 처분했는지 예나 지금이나 이윤을 다투는 세상사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작가의 말, 『심청』, 하, 331쪽)

질서의 내포를 가지며 일반적 금기를 설정함으로써 스스로를 폭력, 위반의 세계와 구분한다. 그러나 바타이유에 의하면 금기와 위반은 그렇게 분리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보완적으로 공존하는 그리고 그 공존의 계기를 통하여 내재적 신성성을 발현할 수 있는 것이다.⁵⁾ 황석영이 심청을 매춘의 공간에 배치시킨 의도 역시 이러한 금기와 위반의 상호보완적 관계로 읽어낼 수 있다. 특히 매춘의 공간이 조선 땅을 벗어나 중국, 타이완, 싱가포르, 일본의 이동 경로 또한 범상하지 않다. 그러므로 『심청』에 나타난 매춘은 19세기 동아시아를 둘러싸고 있는 근대화 의 폭력성을 환기시키는 근대 제도의 거울인 셈이다. 제도의 거울로서 매춘은 제도의 폭력성을 가차없이 폭로한다.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지점은 바로 이러한 이중성에 있다. 폭력이 각인된 제도 안의 몸이면서 제도 밖을 사유하고자 하는 틈을 만들어내는 몸의 이중성에 주목하여 텍스트 『심청』이 제안하는 19세기 동아시아 근대의 바깥을 찾아내고자 한다. 이것은 비단 지난 세기의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를 가로지르는 일이 될 것이다.

II. 근대적 시선에 포획된 몸과 강제된 동질성

1. 강제된 동질화와 배제의 몸

심청은 아버지 심봉사를 위해 은자 삼백냥에 청나라 남경 상인들에게 팔린다. 심청은 조선과 중국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굶판의 제물이 되어 제의적 죽음을 통과하고 중국의 부잣집에 侍妾이라는 물목으로 분류된다. 이때 심청이라는 이름은 지워지고 새로운 이름이 부여된다.

5) 바타이유, G.(조한경 역), 『에로티즘』, 민음사, 1993, 9-10쪽; 이경, 「1920·30년대 소설에서의 매춘- 제도의 거울」, 김정자 외, 『한국현대문학의 성과 매춘』, 태학사, 1996, 36쪽.

“대인, 이번 화물 중에선 인삼보다도 저 아이가 제일 귀한 물건이겠소”

선장이 말하자 늙은이 대신에 중년의 상인이 받는다. 그러니 이문을 많이 남겨야겠지요.

늙은 상인이 웃는 얼굴로 대답했다.

그래 아주 참하게 생겼구나 용왕제도 치렀으니 새 이름을 지어 줘야겠지.

조선 상인이 말했다.

“대인께서 지어주십시오.”

‘그래, 뭐라고 할까...?’

늙은이가 찻잔을 입에 갖다대며 생각해보더니 고개를 끄덕인다.

“렌화(蓮花), 렌화라구 하지.”

선장이 웃으면서 말했다.

“홍련이오, 백련이오? 붉은 꽃과 흰 꽃은 보기에도 아주 다릅니다.”

“그 둘 다요. 그냥 렌화라구 하지. 자네 치부책 물목에다 그렇게 올리게”

(『심청』 상, 23쪽)(밑줄 필자)

조선 상인과 중국 상인 간의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용왕제의를 통과한 심청이 맞닥뜨린 현실은 물목을 교환하는 장사꾼들의 협상 공간이며, 그 곳에서 심청은 하나의 물목에 지나지 않는다. 물목의 이름은 ‘렌화(蓮花)’. 중국 상인에 의해 즉흥적으로 불리어진 렌화는 그 의미가 연꽃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나, 치부책에 올려진 연꽃에서 본질적 가치를 찾는 것은 무의미하다. 교환가치로 거래될 수 없는 본질적인 가치를 교환가치로 균질화 하려는 장치는 심청이 거쳐 나온 통과제의의 속성을 보여기도 하고, 앞으로 심청이 살아 나가야 하는 미래에 대한 은유이기도 하다. 이 은유는 곧 현실화되어 심청은 부잣집 첩 대인의 시첩(侍妾)으로 팔려간다. 시첩이 된 청이가 첩대인과 첫날밤을 보내면서, 심청과 렌화의 균열과 통합을 경험한다. 이는 또 다른 통과제의의 형식으로 읽어낼 수 있다.

나는 청이야. 넌 누구니?
 나는 렌화라니까. 넌 이미 귀신이야
 누구 귀신?
 예전에 벌써 죽은 귀신.

청이의 감긴 눈꺼풀 안쪽 부연 어둠 속에서 벌거숭이 두 계집아이의 모습이 뚜렷하게 떠올랐다. 한쪽은 외로 땀은 머리를 늘어뜨리고 다른 하나는 양갈래로 땀은 머리를 엮어서 뒤통수 위로 틀어 올렸다. 둘은 서로 뒤엎기더니 그림자가 합쳐지듯 흐릿하게 하나가 되었다.

(『심청』 상, 42쪽)

청이는 죽은 귀신이다. 렌화가 청이의 몸을 지배하고 있다. 중국에는 ‘흐릿하게 하나가 되었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일차적으로 청이가 선택한 현실적인 전략은 ‘렌화로 살아가기’임을 보여준다.

합방 중 첸 대인의 죽음을 목격하고도 ‘침착하게’사후 처리를 하며, 계산을 해 보는 태도 역시 상품화된 성의 작동방식을 수용하고 있는 ‘렌화’를 보여준다. “청이로 되돌아갈 순 없어”라는 그녀의 의지는 첸 대인 아들과의 거래를 성사시킨다. 그런데 여기에서 ‘청이로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선언이 과거와의 분명한 단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⁶⁾ 오직 첸 대인의 ‘후미진 별당’을 탈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구앙의 애첩이 된 심청은 단호하게 ‘힘 있는 자를 이용해 힘을 가질 것’을 선언하며 구앙이 경영하는 도박과 매춘의 집산지 복락루의 질서를 내면화한다. 이처럼 상품화된 성은 구앙과 지룡의 사창가를 전전하면서 더 극대화된다.

6) 서영채는 ‘청이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독백을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서영채, 앞의 책, 183쪽) 여기에 대한 근거로 심청이 이후 만나는 사람에게 ‘진장의 화지야’로 소개 하는 부분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이는 심청이 지룡의 사창가나 단수이의 유곽, 일본의 요정 용궁을 경영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이다. 이러한 소개방식은 현실적이고 직업적인 전략으로 기능한다.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은 공간에서 본인의 출발지는 조선의 ‘복사골’이다. 현실의 거울로 등장하는 복사골에는 항상 ‘한 갈래로 머리를 땀은’ 청이가 있다. 그러므로 이를 과거와의 단절이라는 일면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해 거부와 수용이라는 이중적 코드로 읽을 수 있다.

한편, 지룽의 사창가를 지나, 제임스의 현지처로 싱가포르에 온 심청에게 다시 '로터스'라는 이름이 부여된다. 제임스의 집사가 붙여 준 로터스는 이제 로터스라는 기표에 맞는 기의들을 채워 넣을 것을 요구받는다. “대륙과 달리 여기선 중국옷을 입으면 천한 사람으로 취급 받습니다”라는 허 정리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서 다르다는 의미는 차이가 아니라 차별의 의미를 내포한다. 싱가포르로 건너간 제임스가 청이에게 “당신을 새사람으로 만들 작정이다.”라고 말하는 제임스의 눈에 제일 먼저 포착된 것은 ‘메이두’(매독)이다.

“이걸로 씻구 잔다.”

청은 알아듣지 못하고 제임스의 구두를 벗기려 했고 그가 웃으면서 뿌리쳤다.

“같이 자기 전에 너 먼저 씻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씻는다.”

제임스의 거듭되는 손짓에 청이는 비로소 그가 무얼 원하는지 알아들었다. 아, 이 사내는 병을 겁내고 있구나. 아직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제임스가 다시 중얼거렸다.

“메이두, 메이두, 무섭다!”

청은 자기가 다시 지룽의 사창가로 돌아온 느낌이 들었다.

(『심청』 하, 22쪽)

심청에 대한 제임스의 태도는 병균체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출발하여 그것을 봉쇄하고자 한다. 근대의학에서 세균의 발견은 인간과 미생물의 투쟁이라는 형이상학적 이미지를 만들어냈다.⁷⁾ 눈에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있을 지도 모르는) 미생물들에 대해 근대인들은 불안해하며 그것을 원천 봉쇄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다. 여기에는 몸의 타자인 미생물을 발견해내고, 분류하고, 제거하고자 하는 시각적 원리가 철저히 내재되어 있다. 한편 병원체에 대한 관심은 청결과 위생에 대한 강박증으로 이어진다. 미생물과의 전쟁이 병의 예방과 치료의 핵심이 되

7)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역,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1997, 141쪽.

자 자연히 깨끗한 물, 청결한 신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것이다.⁸⁾ 분류, 통제, 배제의 원리는 청결한 몸/ 더러운 몸의 관계로 재생산된다. 이때 청결과 위생은 문명의 기호가 되고 불결과 비위생은 야만의 기호가 되어, 근대 권력의 작동방식을 내장하고 있다.

제임스가 갖는 매독에 대한 두려움은 이 균을 보유하고 있을 지도 모르는 창녀 청이의 몸을 불결하고 미개한 위치에 배치시키는 것을 정당화한다. 이러한 배치는 이들의 일상 영역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 제임스의 저택에서 청이에게는 허용보다는 금지가, 포괄보다는 배제가 우선 시된다. 시계로 표시되는⁹⁾ 철저한 훈육적 시간표 위에서 하루의 일과가 운용되고, 할 수 있는 일보다 금지되어 있는 일을 먼저 숙지해야 하며, 집 안에서 열리는 백인들의 만찬에도 참여할 수 없다. 회사동료들과 저녁 만찬 때 별실에서 따로 저녁을 먹으라는 제임스의 말에 청이의 뇌리에 ‘밤마다 소독수로 아랫도리를 닦는’일이 겹쳐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저녁만찬에 초대받지 못하는 몸이나, 밤마다 소독을 해야만 하는 몸이나 배제와 금지라는 면에서 같은 한 몸임을 의미한다. 이처럼 상품화된 성의 영역에 있는 심청은 제도 안에서 언제나 거부와 배제의 영역에 배치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8) 이승원, 「20세기 초 위생담론과 근대적 신체의 탄생」, 《문학과 경계》, 창간호 2001, 302쪽.

9) 심청이 제임스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놀란 물건이 ‘시계’이다. “심청은 시계가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시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심청』, 하 14쪽) 제임스의 집사와 하인을 통해 시간이 돈이라는 것과 시계 보는 법을 배운다. “저희는 시계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주인님이 식사하는 때와 회사에 나가는 때를 알아야 하고, 점심 자시러 집에 들어 올 때와 저녁에 귀가하실 때가 정해져 있거든요.” (『심청』 하, 15쪽) 그러므로 시계라는 도구는 청이가 시간표에 의해 철저히 훈육되고 관리되는 기제가 된다. 이때 시간표의 중심에는 시간을 사용하는 각 개체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사람 제임스가 있다. 즉, 모든 사람들의 시간은 제임스의 시간에 맞추어져 있다. 심청이 제임스 집을 떠나올 때 시계를 그 집에 두고 나오는 서사장치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훈육적 장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녀의 의지작용으로 읽어낼 수 있다.

2. 감시의 시선과 매춘의 양가성

1) 서양 전함과 병선들은 유유히 만을 제압하고 늘어서서 이번에는 육지를 향하여 포격했다. 전함은 물위에 떠서 움직이는 요새와도 같았다. 처음에는 먼저 해안 방어선을 향하여 쏘았는데 몇발에 벌써 벽이 무너지고 목책들은 사방으로 부서져 날아가버렸다. 연이은 전함의 포격이 해안을 물결처럼 휩쓸었다. 무기라고는 고작해야 창칼과 활에 쓸모도 없는 화승총이 고작인 관군은 우박처럼 쏟아지는 포탄에 거의 궤멸되었다. 방어선이 뚫리고 그나마 몸이 성한 군사들은 앞뒤를 다투어 해변에서 부둣가를 향하여 달아났다. 그러나 포격은 사정없이 진장의 강변에서부터 차츰 부두와 더 위쪽의 거리를 향하여 날아왔다. 귀청을 찢는 듯한 폭음에 이어 화약이 폭발하면서 사방에서 불길기 일어났고 진장은 온통 불길과 연기에 휩싸였다. 전함의 포격이 멎으면서 보트가 내려지고 영국군이 수십명씩 타고 상륙했다. 해변에서 대오를 갖춘 군대가 총검을 꽂은 장총을 앞세우고 방어선을 뛰어넘었다. 영국군을 태운 보트들은 끊임없이 몰려오고 있었다. 영국군은 별 저항도 받지 않고 부두를 완전히 장악했고, 중국군은 어디로 흩어졌는지 길가에 남은 시체와 부상병들뿐이었다.

(『심청』 상, 142-143쪽)

2) 그들은 이제부터 잡아온 여자의 부끄러움을 없애고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미에치를 하려는 참이었다. 노파의 아들이 먼저 침상에 오르더니 벽쪽으로 물러나는 청이에게 무릎걸음으로 다가갔다. 그는 청이의 옷깃을 두 손에 쥐고 서슴없이 찢어내렸고 그네는 비명을 내지르며 가슴을 가리고 돌아앉았다. 다른 사내들이 제각기 손을 내밀어 찢어진 옷가지를 걷어버리거나 속곳마저 아무렇게나 벗겨 버렸다. 알몸의 청이는 네 남자들이 내려다보는 침상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한 사내가 먼저 청이의 두 팔을 잡아 쳐들고 다른 사내는 그네의 버둥대는 두 다리를 잡고 가랑이를 벌렸다.

(『심청』 상, 172쪽)

1)은 본격적으로 청이 남성의 응시에 포획되는 매춘부의 몸이 되는 지름으로 이동하는 길목에서 서술자가 보여주는 거리풍경이다. 2)는 심청

이 지롱의 사창가로 팔려가기 전 윤간을 당하는 장면이다. 서양 함대의 침략과 윤간을 당하는 심청을 병렬적으로 배치시켜 놓은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전함과 병선들을 앞세우고 중국에 들이닥친 영국 제국의 폭력은 동아시아 근대화과정을 지배하는 서양/동양의 이분법의 관계로 이는 다시 남성과 여성, 창녀 심청의 몸 위에 겹쳐진다. 영국군의 침략과 하루에 '10명이 넘는 남자를 받아내는' 심청의 매춘의 현장에 심청의 몸이 시·공간적으로 병치됨으로 이것이 동일한 근대화의 폭력 속에 놓여 있는 것임을 말해준다.

청이가 매춘부가 되는 과정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장치는 청이의 '꿈'이다. 이 꿈은 청이의 매춘 형식에 대한 알레고리이다.

아, 이것 봐, 내가 벌거벗었잖아.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네의 다리 사이에서 걸리직거리고 있는 게 죽은 짐승처럼 늘어진 자지가 아닌가. 사람들 틈에는 첨 대인도 호물호물하는 걸음걸이로 살아있고, 복락투의 구앙이 놀라서 뒷걸음질을 치고, 동유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쫓아온다. 렌화, 렌화야 너는 내꺼야! 청이는 사람들을 피하고 팔을 휘둘러 뿌리치며 달아난다.

(『심청』상, 199쪽) (밑줄 필자)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 청이는 첨 대인도, 구앙도, 동유도 다 뿌리치며 달아난다. 이들은 어쨌든 한때 청이와 관계를 맺으며 지냈던 남자들이다. '뿌리치고 달아난다'는 것은 지롱의 유곽으로 가는 길에, 과거의 남자들과 결별을 하고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는 통과제의로 볼 수 있다. 둘째, 이때 새로운 몸이 남근을 소유한 청이의 몸이다. 남근이 심청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남성의 질서가 몸에 각인되었음을 상징한다. 셋째, 그런데 이 남근은 '죽은 짐승'에 비유되어 있다. 죽은 짐승에 비유된 어설픈 남근을 남성에게 대한 '불완전한 모방'의 형식으로 본다면, 이 형식은 또 하나의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일차적으로 남

근을 소유함으로 남성의 질서에 포획된 형식을 드러낸다면, 이차적으로 어설프고 불완전한 남근을 재생산해냄으로 남성의 포획장치를 ‘조롱’하는 태도의 일면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남근을 가진 몸이 된 심청은 일차적으로 남성의 시선(응시)이 내면화되었으나, ‘죽은 짐승’에 비유된 남근이라는 서사장치는 이를 벗어날 수 있는 틈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틈이 작용하는 일차적 공간은 심청이 매춘(買春)의 남성들에게 창녀의 응시를 되돌려주는 지점이다.¹⁰⁾

청이는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입을 반쯤 벌려 숨을 내뿜고 있었지만 절대로 눈은 감지 않았다.

(『심청』상, 175쪽)

내가 저들을 다 삼켜버릴 거야. 그래 조금만 참자. 저들을 차레차레 쓰러뜨릴 테니까.

(『심청』상, 174쪽)

청이는 턱을 쳐들고 당당하게 사내를 굽어 보았다. 청이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 벽 위에서 날벌레의 그림자가 팔랑대는 꼴을 유심히 보고 있었다.

(『심청』상, 220쪽)

청이는 일부러 소리를 지르고 다리와 둔부를 움직여 그를 자극했다.

(『심청』상, 247쪽)

10) 서영채, 앞의 책, 187쪽. 그러나 엄밀히 말해 창녀의 응시는 자발적인 힘을 갖지 못한다. 결국 자본과 남성의 시선이 만들어 내는 창녀의 응시는 결국 내면화된 시선을 말한다. 멸시와 배척과 치욕을 당한 자는 자신의 존재를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 ‘정신분열증’이나 ‘자폐증’에 걸리지 않는다면 상황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는 ‘복수’와 ‘가해자에의 정체화’를 통해 가능하다. 복수가 동물적인 정의의 실현의 측면을 갖는다면, ‘가해자에의 정체화’는 자기부정으로 시작한다. 따라서 복수의 경우와 가해자에의 정체화의 경우 그 부정성의 방향이 다르다. 복수에서는 부정성이 가해자에게 향해지는 반면에 가해자에의 정체성은 부정성이 멸시 받았던 자기 자신으로 향한다. (이종영, 『성적지배와 그 양식들』, 새물결, 2001, 252-253쪽) 오태호는(『황석영 소설의 근대성과 탈근대성』, 경희대 박사논문, 2005, 221쪽) ‘축 늘어진 자기’에 주목하여 이를 남성 혐오증으로 보고 있다. 남성 혐오 역시 가해자에의 정체성으로 되돌려짐으로 볼 수 있다.

칭이는 조금 간지러웠지만 신음소리를 내 주었다. 그건 서로가 상대의 노골적인 자세를 너무나 생생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리고 상대가 자기의 하는 짓을 보고 있다는 것을 또한 스스로 안다.

(『심청』하, 24쪽)

위에서 보는 것처럼 창녀 심청의 공간에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감각은 시각적 원리이다. 이러한 관계는 어쨌든 일차적으로는 남성들이 각인시킨 시각적 원리에 순응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견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궁극적으로 시각적 응시를 이탈하거나 변형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다시말해 假聲이나 연기를 통해 남성을 대상화하려는 행위는 남성적 시선에 포획되지 않으려는 창녀 칭이의 의지적인 면을 엿보게 하나, 결국 시각적 응시가 각인된 창녀 심청의 몸을 부각시킴으로 그 논리에 그대로 포획될 수 있는 함정을 노출시키기도 한다.

판매자이면서 상품이기도 한 창녀는 성애의 상품화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상징이며, 경제와 성욕, 합리적인 것과 비합리적인 것, 도구적인 것과 미적인 것 간의 모호한 경계를 교란시키는 대표적인 예이다.¹¹⁾ 『심청』에서 매춘은 심청의 끈고함을 가져다 준 모더니티의 폭력일 뿐만 아니라 심청을 모더니티 속에 살아남게 하는 수단이기도 하다.¹²⁾ 즉 희생자이면서 유혹자¹³⁾의 두 얼굴에서 감시의 시선을 교란하는 가능성을 잃어낼 수 있다. 유혹자가 금기와 위반의 경계를 넘나들며 제도의 엄정성을 교란시키는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으나, 궁극적으로 유혹자의 시선만

11) R.펠스키, 김영찬·심진경 역, 『근대성과 페미니즘- 페미니즘으로 다시 읽는 근대』, 거름, 1998, 47쪽.

12) 최영석, 『강신(降神)과 축귀(逐鬼)』, 《작가세계》, 60호, 2004, 봄, 84쪽.

13) 푸코는 성적 욕망은 권력이 피지배계급의 주체를 박탈하는 수단인 동시에 그러한 권력관계를 전복시키는 저항의 전략이라고 보았다. (미셸 푸코 (이규현 역), 『성의 역사』, 나남, 1990, 129-170쪽 참고) 그러므로 심청이 남성의 권력을 내면화하여 재현하고 있다는 일면적인 해석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으로는 모더니티를 넘어서는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구도는 결국 남성적 응시에 수렴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더니티의 폭력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창녀의 응시가 아닌, 모더니티의 폭력 바깥을 사유할 수 있는 서사공간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간으로 설정된 것이 창녀 심청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배려의 공간이다. 지룽의 사창가에서 만난 창녀 링링과의 자매애나, 사창가에서 만난 창녀들과 연대해 보육원이나 기아보호소를 설립, 운영하는 장치들은 피학과 가학의 경계를 넘어서는 대안의 공간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3-2장에서 자세히 논할 것이다)

제의적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태어난 심청은 렌화- 로터스로 호명된다. 이 호명의 방식은 심청을 다시 강제된 동일화의 공간에 재배치시킨다. 이렇게 감시의 시선에 포획된 심청의 몸은 결국 19세기 제물의 재생산이며 확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황석영은 근대에 포획된 심청의 몸이 한편 근대의 거울이 되게 하는 이중성을 서사 전략으로 채택하여 이러한 시선들을 교란시키는 변이의 공간들을 배치하고 있다.

Ⅲ. 분열적 주체와 탈주의 공간

1. 분열적 주체와 탈주의 선

앞에서 밝힌 것처럼, 심청의 이름은 여러 개다.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심청- 렌화- 로터스- 렌카로 이동한다. 이러한 명명법은 강제된 동일화에 기인하고 있음을 이미 밝혔다. 강제된 동일화에 비해 이 기표들 앞에서 보여주는 심청의 반응은 양가적이다.¹⁴⁾ 이미 권력과 자본의 세계에 편

14) 이러한 양가적 반응은 이미 지배자의 논리 속에 내재되어 있다. 지배자는 피지배자의 지배하기 쉽도록 ‘나를 닮아라’고 요구하면서 한편으로 ‘나와 같아서 안된다’는 요구를 한다. 이런 허용과 금지가 뒤섞인 양가적 요구에 피지배자는

승한 칭이 자신의 호명 방식에 맞는 주체로 설 수밖에 없으나, 칭이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발견하고 귀 기울인다거나, 렌화, 로터스, 렌카¹⁵⁾가 아닌 본원적인 존재로서 칭이의 공간을 환기하며 현재의 직선적인 공간에 틈을 만들어 내는 일들은 금지와 위반의 태도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칭이의 내면을 보여준다.

첸 대인의 집으로 간 날 거울 앞에 선 칭이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소스라치게’놀란다.

1) 넌 누구야?

넌 누구야, 라고 바로 면전의 얼굴이 되물었다. 칭이가 가리개를 밀치고 벽에 다가가자 그네는 선명하고 빛나는 물체에 부딪칠 뻔했다. 칭이는 양거울을 처음 보았다. 거울은 작은 상만한 크기였는데 그 속에 낮익은 얼굴이 떠올라 있었다. 물동이 속에서, 하늘거리는 냇물의 수면 위에서, 반질반질 닦은 놋뚜껑의 앞면 뒷면에서, 똑바로 일그러지게, 길쭉하게, 넓적하게 보이던 바로 그 얼굴은 자기였다. 칭이는 두 손으로 불을 감싸 안았다. 맞은편의 렌화도 불을 감싸 안는다.

아, 그래 내가 원래 칭이었지...

심청은 멀뚱히 렌화를 바라보다 허리띠를 풀고 비단 홀옷을 벗어 발아래 떨어뜨렸다. 그네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별거벗은 몸을 남의 것처럼 바라보았다. 거울 속의 렌화가 말했다.

너는 내가 아니야.

(『심청』상, 35-36쪽)

‘규칙을 따르면서 동시에 어기는’ 양가적 반응을 보인다. 피지배자의 양가적 반응은 지배자의 모범을 충실히 따르는 미메시스를 하는 듯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전복하는 ‘엔터티 흉내’가 만드는 전복의 효과를 본다. (박상기, 『탈식민주의의 양가성과 혼종성』, 고부웅 엮음,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 문학과지성사, 2003, 233-237쪽 참고)

15) 렌카는 렌화와 로터스의 경우와는 사뭇 다르다. (이에 대해서는 3-2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그러나 조선으로 돌아온 렌카는 심청의 위패를 스스로 거두고 다시 심청 할머니로 명명된다는 점에서 렌카 역시 심청의 세계와는 구별된다.

2) 칭이는 거울에 비친 낯선 여자의 모습을 물끄러미 건너다 보았다. 아마가 풀어준 머리카락이 모자 아래로 흐트러져 내려와 있고 목덜미에서 어깨로 이어진 쇠골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가슴을 한껏 부풀어 레이스가 달린 앞자락이 곧 터져 버릴 것 같았다. 칭이는 처음 렌화를 만났을 때처럼 낯선 이국의 이름을 읊조려 보았다. 로터스... 넌 이제 칭이도 렌화도 아니야. 거울 속에서 로터스가 입을 벌리며 푸후후 웃고 있었다. (『심청』하, 11-12쪽) (밑줄 필자)

1)은 심청이 첸 대인의 집에 간 첫 날 거울 앞에 선 장면이고, 2)는 영국인 제임스의 현지처로 싱가포르에 있는 제임스의 집에 간 첫날 거울 앞에 선 장면이다. 이러한 거울 체험은 심청의 이동경로에 따라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 두 장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요소는 다중적인 목소리가 혼재한다는 것이다. 이 다중적 목소리는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서 보이듯 주체분열에서 기인한다. 그러니까 ‘양거울’로 표상되는 근대 문명을 체험하는 방식은 ‘주체의 분열’이다.¹⁶⁾ 이 과정에서 ‘심청’과

16) 분열적 주체로 수렴되는 거울의 이미지는 이미 식민지 근대 체험의 한 방식으로 1930년대 모더니즘 문학에서 많이 등장한 바 있다. 이때 주체의 분열은 일차적으로는 식민지 근대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되지만, 한편으로는 식민지 근대질서를 교란시키는 틈으로 작용한다. 『심청』에서 서술된 심청의 거울체험 역시 이러한 양면을 내재하고 있다. 신현준은 들뢰즈/가타리 이론을 분석하면서 자본주의 공리계의 두 극은 분열증과 편집증이며, 자본주의의 탈코드화되고 탈영토화된 흐름(flow)은 분열증적이지만, 이 흐름이 자본주의의 틀을 넘어 탈주하는 것을 억제하는 재영토화의 조작은 편집증적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개인들이 많은 적든 분열증 증상을 보이는 것은 정상적이며, 상정계의 인식론적 제약 뿐 아니라 사회의 정치적 제약으로부터도 탈주하는 주체, 즉 분열적 주체를 생산해야 하는 것이 분열증 분석이 된다. 나아가 들뢰즈/가타리가 말하는 분열적 주체는 모든 표상체계로부터의 해방을 도모하는 생성의 운동을 수행하며, 나아가 어떠한 고정된 존재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상정계로부터도 탈주한다고 설명한다. (신현준, 『들뢰즈/가타리: 존재의 균열과 생성의 탈주』, 이진경 신현준 외, 『철학의 탈주』, 새길, 1995, 247-302쪽 참조 (오태호, 앞의 논문, 219쪽에서 재인용))

‘렌화’, ‘로터스’의 목소리들이 혼재한다. ‘렌화’라는 ‘물목’으로 거래되었 으면, 렌화는 여전히 낯설고, ‘로터스’ 앞에서는 청이도 렌화도 낯설다. 이처럼 강제되는 기표 위에서 끊임없이 ‘너는 누구냐’라고 환기하는 청 이의 태도는, 청이를 렌화로 강제하는 동일화에 대한 탈주의 전략을 수 행하려는 분열적 주체의 저항의 몸짓으로 읽어낼 수 있다. 특히 ‘로터스 년 이제 청이도 렌화도 아니야’라는 독백의 언술은 청이와 렌화를 배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이와 렌화를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¹⁷⁾ 청이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청이를 호명하고 그녀는 그 호명에 맞는 복식(服飾)¹⁸⁾을 하지만, 그녀는 은밀히 과거를 불러오고, 현재와 과거가 뒤섞인 공간 속에서 그녀는 분열된다. 이러한 분열적 주체가 꿈꾸는 곳은 ‘아무도 나를 속박할 수 없는 곳’이다. 속박당하지 않고 자유를 찾아가는 첫걸음은 현실이 폭력적으로 지워내는 과거를 스스로 환기함으로 현재와 끊임없이 대화적 체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 대화적인 공간은 심청을 강제화 된 동일화의 공간에 포획하려는 지배자의 시선을 교란시킬 수 있는 가능성으로 작용한다.¹⁹⁾

17) ‘부정의 판단’은 단독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이것은 그 판단을 내리는 사람의 관심이라는 요소를 함축하고 있다. ‘이 탁자는 검다’라고 말할 때 발화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 탁자에 대해서이다. 그러나 발화자가 ‘이 탁자는 하얗지 않다’고 말할 경우 발화자가 지각하고 있는 것은 탁자 그 자체가 아니라, ‘하얗다’라는 부분이다. 즉, 하얀색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이 탁자는 하얗지 않다’라는 발화가 생성된다. 다시말해 ‘하얗지 않다’라는 언술 속에는 하얀색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 (이정우, 『담론의 공간』, 민음사, 1999, 44-45쪽)

18) 『심청』에서 심청의 복장에 대한 변화 역시 심청의 시공간과 맥을 같이 한다. 즉 하얀 소복-비단포- 치포- 레이스장식의 드레스-치포- 유카타의 변화는 곧 심청의 삶의 은유이다

19) 심청이 그들의 호명에 표면적으로 순응적인 태도를 보이나, 은밀한 사적 공간에서 내면의 목소리를 발견하는 것은 바바가 지적하는 혼종성으로 읽어낼 수도 있다. (박상기, 『탈식민주의의 양가성과 혼종성』, 고부웅 엮음,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 문학과지성사, 2003, 247-255쪽 참고)

2. 보살핌의 공간과 자매애적 연대성

심청의 유랑이 언제나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렌화, 로터스로의 이동이 강제적이라면 ‘렌카’의 경우는 사뭇 다르다. 호명에 대응하는 심청의 태도 차이에서도 이를 알 수가 있다.

“아, 여기서부터는 내 고향이다! 렌화도 여기 식으로 렌카라고 불러야 맞겠네.”

“그래요... 전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심청』하, 76쪽)

렌화와 로터스 앞에서는 낯설음과 두려움을 경험하던 심청이 렌카 앞에서는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함께 간 후미코 이모와 마찬가지로 상기된 태도를 보인다. 후미코는 심청이 지룽의 극심한 사창가에서 만난 사람이다. 그녀는 청이와 유사한 과거를 공유하고 있으며 심청의 양딸 유자오의 유모를 선뜻 자처하고 나섰던 사람으로 청이는 이모라는 호칭으로 그녀를 대한다. 이런 의미에서 후미코는 청나라 상인이나 제임스의 집사와는 다른 관계망에 놓여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후미코의 감동은 청이의 감동으로 전이될 수 있다. 그러므로 후미코가 불러주는 렌카는 앞선 렌화와 로터스와는 질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심청이 자발적으로 떠나 새롭게 만든 공간 용궁 역시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지난 시절 심청이 육체와 권력과 돈에 노출된 창녀의 몸이었다면, ‘용궁’에서는 그 이전처럼 직접적인 현장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서 주의해서 볼 것은 심청이 창녀에서 마마상으로, 종속된 신분에서 관리의 신분으로의 상승이 아니라, 용궁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면면과 그 관계들이다. 용궁은 청이가 철저히 시각화 된 몸의 논리만 존재하던 이전의 유곽들의 풍경과는 다르다. 이 차이는 ‘용궁’의 구성원들의 면면과 관계맺음의 방

식이 상이한 데 있다.

용궁이 위치해 있는 곳도 중심가가 아닌 후미진 변두리에 터전을 잡았고, 집의 뼈대를 만들어 나가는 초기의 구성원들 역시 중심에서 쫓겨 나가거나 쇠락하여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다. 여기에서는 원전 『심청전』의 용궁의 화려함과 영광스러움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이 만나는 장면 역시, 돈이 먼저 거래되고, 가치는 그 돈에 맞추어지는 것과 달리 이들의 교섭은 돈이 후 순위가 된다. 술주정뱅이 ‘로쿠’, 무당 출신인 중년의 여자 약사 ‘나바’, 기녀 ‘세리’이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나의 사용가치가 먼저 발견된 자들이다. 비록 쇠잔하여 변두리로 밀려나 떠돌아 다녔으나, 역시 주변부로 떠밀려난 청이나 후미코에 의해 이들의 가치는 재발견되어 용궁에 모인다. 이렇게 해서 렌카, 후미코, 유자오, 로쿠, 나바, 세리는 모두 ‘한 가족’이 된다. 특히 개업하기 이전 마련된 음주가무의 場은 서로의 노래와 술과 몸짓이 어우러진다. 이 소리와 몸짓은 앞의 시각적 응시와는 달리 포괄과 배려의 태도로 확장될 수 있는 기호들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들의 과거는 배척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대의 공간으로 안착된다.

용궁에서 만난 남성, 가즈토시와의 성관계도 앞의 남자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이들의 성관계는 남성적 응시가 지배하던 렌화, 로터스의 시간과는 사뭇 다르다. ‘음양이 하나가 된’ 몸으로 서로를 만진다.²⁰⁾ ‘보다’라는 시각(응시)과 假聲으로 포장된 연극적 자기에서 가즈토시와의 관계에서는 만짐과 느낌의 관계가 된다.²¹⁾

20) 접촉이나 애무는 친밀감의 상징이다. 구경하는 시각이 남성의 것이라면, 참여하는 촉감은 여성의 역할을 통해 강화된다. 몸의 정치를 여성화한다는 것은 바로 친밀감을 상징하는 것이다. (정화열, 『몸의 정치』, 민음사, 1996)

21) “청은 큰 소리를 참느라고 입을 다물었지만 어느 모퉁이에서 저절로 비명이 새어 나왔다.”(『심청』하, 113쪽), “청은 입술로 그의 목덜미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슴에서 아랫배에 이르기까지 천천히 부드럽게 애무했다.”(『심청』하, 293쪽) 이는 앞의 매춘의 공간에서 묘사된 성행위와는 아주 다르다. 2-2장 참고할 것.

만짐과 느낌의 관계는 앞서 렌화 시절 만난 유랑 악사 동유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이 들은 ‘팔려다니는’ 공통의 체험 앞에서 서로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갖는다. 복락루의 화지아 렌화는 동유 앞에서는 렌화가 아닌 청이의 몸이 된다. 두 사람은 떠 있는 배 위에서 자기들만의 혼례를 올린다. 비파와 호궁에 비유한 동유와 청이의 성관계는 청각과 촉각의 이미지로 묘사된다. 청각과 촉각은 시각적 이미지와는 달리 통합과 배려의 관계를 만들어 낸다.

“청이의 몸 속으로 동유의 남근이 들어갔을 때에 호궁 소리는 저음에서부터 차례로 줄을 바꾸어가며 길게 높은 자리로 옮겨간다. 비파는 소나기라도 퍼붓는 것처럼 거칠고 빠르게 연주된다. 배전이 좌우로 흔들리고 배는 아래 위로 출렁거린다. (중략) 비파와 호궁은 이제 같은 곡조로 화음이 이루어져 끝없이 너른 평원의 가운데를 도도하게 흘러가는 강물처럼 장쾌한 물소리와 함께 하류로 내려간다.”

(『심청』상, 136-137쪽)

이처럼 시각이 아니라 청각, 직선이 아니라 ‘유연한’ 곡선, 남성이 아니라 여성적 이미지로 집약되어 있는 이들의 성관계는 매춘 현장의 시각화된 몸과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이러한 성관계는 나아가 가즈토시, 센신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동유, 가즈토시, 센신은 청이의 몸을 거쳐간 수많은 남성들과는 구별되는 세계를 보여주는 남성들이다. 떠돌이 악사 동유는 영주 가즈토시로 다시 영주 가즈토시는 민중의 편에 선 개혁주의자 센신으로 대체된다.

한편, 이러한 만짐과 배려의 극대화를 보여주는 것은 청이와 주변의 여성들이 보여주는 ‘자매애’이다. 복락루의 키우, 지룡의 유메이, 링링, 단수이의 상 부인, 싱가포르의 현지처들. 심청이 배제와 감시의 공간을 견딜 수 있는 조력자, 혹은 긍정적 영향자들은 공교롭게도 여성들이다. 이 여성들의 처지 또한 심청이 놓여있는 처지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들은 유곽의 동료이거나 유곽을 거쳐 ‘화지아’나 ‘마마’가 된 사람들이다. 이들과 심청은 동생으로, 언니로, 엄마로, 이모로 서로를 가족의 명명법 속에 배치함으로 가족공동체를 꿈꾼다. 심청이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하고, 남성들의 성적 욕망장치에서 타자화되었다면, 이러한 공간에서 만난 이 여성들은 버려진 심청을 환대한다. 특히 심청의 삶에서 새로운 전환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은 매춘부들의 代母에 해당하는 ‘상부인’이다. ‘상부인’은 심청에게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미 청이를 낳다가 죽은 청이 어머니의 이미지는 청이를 팔아넘긴 아버지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형상화된다. 현실 공간에 배치되어 있는 아버지와는 달리 환상 공간에 배치되어 있는 어머니는 청의 곤고한 현실에 대한 대안적 공간을 마련한다. 용왕제에서 ‘푸른 물을 헤엄쳐 오던’ 어머니는, 일본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지점에서 다시 나타난다. 제의 속의 어머니는 청이 운명의 동반자이자 예언자의 구실을 한다. 꿈에서 무서워 달아났던 아버지에 대한 태도와는 달리, 어머니와는 눈물의 해후를 한다. 어머니와 강한 밀착을 보이는 태도는 현실의 아버지에 대한 대안적인 서사장치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니- 딸의 서사플롯은 다시, 키우, 유메이, 상부인으로 이어져 반복된다. 『심청』에서 아버지의 플롯²²⁾이 근대 폭력의 공간을 서사화한다면, 어머니의 플롯은 근대의 바깥을 서사화한다. 어머니의 플롯은 링링이 낳은 아이를 청이 대신 말아 기르거나, 창녀들이 낳은 아이를 돌보는 육아공동체 ‘소보원(小寶園)’, 오갈 데 없는 혼혈아들을 돌보는 ‘기아보호소’로 이어진다. 여기서 버려진 아이들은 심청의 환유체로 볼 수 있다. 이미 버림받아 팔려 다니는 처지에 있는 심청이 버려지는 아이들에게 보살핌과 배려의 태도로 환대하는 것은 심청에게 내재되어 있는 어머니(모성)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

22) 어머니- 딸의 서사플롯이 다시, 키우, 유메이, 상부인으로 이어져 반복된다면, 아버지의 서사플롯은 쉼대인- 구양- 사창가의 남성 등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동유- 가즈토시-센신은 이들 아버지들이 보여주는 폭력의 방식과는 다른 관계망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앞선 남성들과는 차이성을 갖는다.

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성의 풍경은 근대 아버지의 악무한적인 연쇄를 끊어내는²³⁾ 역할을 담당한다.

강제적 배치에서 출발한 청이-렌화-로터스-렌카의 이동이 만들어내는 틈은 심청을 분열적 주체로 구성하고, 분열된 주체로서 심청은 그녀의 몸이 금기에 완전 포획되는 것이 아니라, 금기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위반의 확대로 작용하는 ‘소보원’, ‘기아보호소’, ‘용궁’은 타자화된 것들을 환대하는 공간이며, 타자들의 새로운 연대성이 생산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곳이다. 이러한 공간은 심청이 거처온 ‘제물’과 ‘매춘’의 공간에 균열의 틈을 만들어, 근대 폭력의 바깥을 사유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IV. 마무리

황석영의 『심청』은 원전 『심청전』의 제의 형식을 다시 읽음으로 새로운 심청을 탄생시킨다. 새로 태어난 심청은 중국 상하이, 진장, 난징, 푸저우, 타이완의 지룽, 단수이, 싱가포르 일본 류큐, 가고시마, 나가사키 등을 유랑하다가 제물포의 ‘연화암’에서 생을 마감한다.

제의적 죽음을 경험하고 난 뒤, 물목으로 거래된 심청은 렌화-로터스로 호명된다. 이 호명의 방식은 심청을 다시 강제된 동질화의 공간에 재배치시킨다. 그리하여 심청은 侍妾으로, 매춘부로, 현지처로 이동한다. 성이 상품화되는 공간으로 이동되며 그녀는 폭력과 감시의 시선이 각인된 몸이 된다. 시선에 포획된 심청은 한편으로는 호명에 순응하지 않고 내면의 목소리를 환기함으로 과거와 현재의 대화공간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자매애적 연대성을 통하여 보살핌과 배려의 공간을 생성해 낸다. 이것들은 근대 시선을 교란시키는 변이의 힘으로 작용한다. 이는 황석영

23) 류보선, 『모성의 시간, 혹은 모더니티의 거울』, 『심청』 해설, 325쪽.

이 근대에 포획된 심청의 몸을 통해 한편으로는 그것이 근대의 거울로 작용하는 이중성을 서사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형식은 탈향과 귀향이라는 서사구조 속에서 고난에서 행복으로 이르는 순차적인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탈향의 출발 지점에서부터 그 균열의 틈새를 노출시키는 중첩적인 서사구조의 형식을 보여준다. 하여 텍스트 『심청』은 19세기 동아시아 근대의 바깥을 사유하고자 한다.

주제어 : 강제된 동일성, 근대성, 희생제의, 매춘, 감시, 이중성, 보살핌의 공간, 자매애, 탈근대성, 양가성

참고문헌

- 황석영, 『심청- 연꽃의 길』 상 하, 문학동네, 2003.
- 고미숙,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 책세상, 2001.
- 김경수, 「근대와 젠더, 그리고 해한 이야기의 발견」, 《작가세계》 60호, 2004, 봄, 114-117쪽.
- 류보선, 「모성의 시간 혹은 모더니티의 거울」, 『심청』 하, 309-313쪽.
- 박상기, 「탈식민주의의 양가성과 혼종성」, 고부웅 엮음,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 문학과지성사, 2003, 247-255쪽.
- 서영채, 「창녀 심청과 세 개의 진혼제」, 『문학의 윤리』, 문학동네, 2005, 183쪽.
- 오태호, 「황석영 소설의 근대성과 탈근대성 연구」, 경희대 박사, 2004.
- 이 경, 「1920·30년대 소설에서의 매춘- 제도의 거울」, 김정자 외, 『한국현대문학의 성과 매춘』, 태학사, 1996, 36쪽.
- 이승원, 「20세기 초 위생담론과 근대적 신체의 탄생」, 《문학과 경계》, 창간호. 2001, 302쪽.
- 이영자 외, 『성평등의 사회학』, 한울 아카데미, 1993.
- 이종영, 『성적지배와 그 양식들』, 새물결, 2001, 252-253쪽.
- 이정우, 『담론의 공간』, 민음사, 1999, 44-45쪽.
- 이헌홍, 『고전소설강론』, 세종출판사, 1999.
- 정화열, 『몸의 정치』, 민음사, 1996.
- 최영석, 「강신(降神)과 축귀(逐鬼)」, 《작가세계》, 60호 2004, 봄, 84쪽.
-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역,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1997.
- 미셸 푸코, 이규현 역 『성의 역사』, 나남, 1990.
- R.펠스키, 김영찬·심진경 역, 『근대성과 페미니즘- 페미니즘으로 다시 읽는 근대』, 거름, 1998.

<Abstract>

A Study on Soggyung Hwang's *Shim Chong's*
modernity and post-modernity

Moon, Jay-Wean

Soggyung Hwang's *Shim Chong* gives birth to a new Shim Chong by reinterpreting the sacrificial rite of the original *Shim Chong Jon* (The Tale of *Shim Chong*). The new Shim Chong wanders from Shanghai, Jinjiang, Nanjing, and Fuzhou of China, to Keelung and Tamshui of Taiwan, then to Singapore, and later to Ryukuy, Kagoshima, and Nagasaki in Japan to finally finish her life in Yonhwa-ahm in Jemulpo, Korea.

In the book, Shim Chong dies a ritual death and is sold as a commodity, from which point she begins to be called "Renhua"- "Lotus". This manner of addressing places Shim Chong, once again, in the space of forced homogenization. Consequently, she becomes a concubine, a prostitute, and then the illegitimate wife of elderly man. Moving through a space where sex is commoditized, her soul becomes etched with violence and the gaze of surveillance. Caught in the gaze, instead of obediently answering to the call of her name, she manages to create a conversational space of the past and the present through evoking her inner voice and build a space of care and consideration through camaraderie based on sororal love, which acts as the force of change that disturbs the modern perspective. From

this, we realize that the author is deploying the narrative strategy of duality Shim Chong's body trapped in modern times on the one hand and using it as the mirror reflecting the various aspects of the times on the other. Instead of showing the narrative in a sequential order as a journey that starts with the heroine leaving her home and ends when she returns home at which point the heroine achieves happiness after experiencing certain difficulties en route, the story is presented in an overlapping narrative structure that reveals the chasms from the very beginning. This amply testifies to the fact *Shim Chong* is intended to think outside the East Asia of the 19th century.

Key Words : forced homogenization, modernity, sacrificial rite,
prostitution, watch, duality, space of consideration,
sororal love post-modernity, ambivalence